

# “白頭大幹”은 우리國土의 骨格뚝

백두산서 智異山天王峰까지 · 1個正幹11個正脈으로



백두산(白頭山)에서 근본이 시작되는 백두대간(大幹)은 지리산(智異山)의 천왕봉까지 지도상의 거리로 1천6백여km나 되는 우리나라의 골격이라고 말할수 있다.

장백정간(正幹)의 우물지(줄기)와 11개의 정맥(正脈)의 가지를 벌려 이땅의 사람들에게 삶의터전을 부여해준 것이 곧 백두대간이다.

그래서 백두산을 뿌리로 하는 백두대간은 나무의 몸통에 해당하며

1개의 정수리와 11개의 가지를 드리워 우리나라 국토의 혈맥을 이룬다.

백두대간이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한곳은 산경표(山經表)라는 책의 기록인데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은 알수없고 육당 崔南善이 그책을 입수해 광문회에서 재판한것으로 알려진 지리의 근간이 되는 1백2페이지 책이다.

이책에는 백두대간지 장백정간 13개의 정맥이 체계적으로 족보처럼 나열되어 있다고 한다.

책속에는 산줄기의 경락은 물론이고 인근 고을과의 거리와 경계가 알기쉽게 표시되어 있다.

산경표가 글이라면 대동여지도는 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 산경표는 여지도로 여지도는 산경표를 언급한 바 없으나 두가지 모두가 일치되는 기록으로 담겼다.

옛 사람들은 산을 물처럼 하나의 끊이지 않는 맥으로 보아왔다.

그래서 산과 강은 공존하며 산은 물을 낳고, 물은 산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높은 산이 가지런히 이웃해 있어도 그 사이의 물은 굽이를 돌아 흐르고 독립된 봉이나 평야에도 지맥이 면면히 이어져 물은 반드시 바다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 했다.

산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온나라의 산이 백두산과 이어지는 총체적인 국토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이번 충북대학교 산악대원들이 백두대간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설악산 진부령을 출발, 지리산 천왕봉까지 실제거리 1천2백km를 도보로 걸어서 종주하게 된것은 국토를 바르게 이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한 뜨거운 정열을 젊은 산악대원들이 보여주는 것으로 큰 기대가 모아지는데 이들이 통과하는 백두대간중에 忠北땅은 40%에 해당된다.

(6.22. 忠清日報 金云基기자)

## <日本(財)國立公園協會消息>

### 會長에 池ノ上容씨 選任

大井 理事長 · 大崎 常務理事는 再任

일본 국립공원협회 89년도 평의원회 및 이사회가 지난 6월23일 東京農林年會館 虎ノ門마스트랄에서 개

최되었는데 사임을 표명해온 千家哲磨회장을 명예회장으로, 池ノ上容부회장을 회장으로, 大井道夫이사장이 부회장을 겸하여 재선임. 또한 大崎清見상무이사도 재선되었다.

(近着日本國立公園誌 476號에서)